

종교·복지

단신

무등종합사회복지관 사랑의 물품 전달식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복지회가 운영하는 광주시 북구 두암동 '무등종합사회복지관'이 19일 오전 10시30분 복지관 2층 세미나실에서 '결손가정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전달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근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내 결손·장애인·독거노인 가정 등 122세대(장학금 12세대·물품지원 110세대)를 대상으로 후원품을 전달한다.

이번에 전달하는 후원품은 지난해 12월 초 무등종합사회복지관 등의 후원으로 열린 '밤살마을 개미장터'에서 모인 수익금으로 준비한 것이다. 문의 062-268-0093. 후원계좌(광주은행 032-107-034960 예금주:무등종합사회복지관)

광주불교사암연합회 23일 성도절 대법회

(사)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지각 스님)는 오는 23일 광주시 동구 장동 KT정보통신센터 3층 강당에서 성도절 대법회를 개최한다.

성도절은 6년 간의 고행 끝에 진리를 깨운 석가를 기리기 위한 것으로 불교 4대 명절(석가탄신일, 출가절, 열반절, 성도절) 중 하나다.

이날 행사는 대북과 가야금 병창 공연을 시작으로 1부 예배 및 반야심경, 2부 회상 아취임시 및 축사와 장학금 수여식, 3부 자강 콘서트 방문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문의 062-376-3224

/정성필기자 camus@

■ '좋은이웃 지역아동센터' 가보니



지난 17일 광주시 남구 구동 굿네이버스 광주지부의 '좋은이웃지역아동센터'에서 어린이들이 자원봉사자의 도움에 따라 노래를 부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결손가정 아이들 "우리에게 천국같은 놀이터"

지난 17일 오전 광주시 남구 구동 전남체육회관 1층 마당에는 예닐곱명의 초등학생들이 모여 공놀이를 즐기느라 시간 가는줄 모른다. 추워도 아랑곳 하지 않고 마냥 즐거운 이들은 남구 대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 겨울방학이어서 갈 곳이 없는 이들에게 이곳은 최고의 놀이터나 다름없다.

이곳은 바로 구호시민단체 '굿네이버스 광주지부'의 '좋은이웃지역아동센터'로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들의 하루를 책임(?)지고 있다. 이 센터는 지난해 12월 결식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 방학 기간 동안 결손가정의 아이들이 점심과 저녁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단순히 한끼를 해결해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리검사 등을 통해 정서지원, 영어·한자·컴퓨터 등 학습, 현장 견학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까지도 제공한다.

'좋은이웃 지역아동센터'는 EBS가 굿네이버스와 함께 방송 프로그램 '사랑의 공부방-네발자전거'를 통해 모금된 성금으로 건립된 곳이다. 3개월여 만

영어·컴퓨터 배우고 점심·저녁 급식까지

에 모은 6천여만원으로 리모델링을 마쳐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최초로 문을 열었다. EBS는 센터 개소 당시 특정 생방송을 통해 '좋은이웃지역아동센터'를 소개한 바 있다.

현재 센터에 매일 나오는 아이들의 수는 20여명. 센터와 가까운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걸어서 오지만, 남구 진월동이나 방림동 등 먼 곳의 아이들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가 직접 방문해 데려온다. 오전 11시경엔 아이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한다. 오전에는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 없이 공놀이 등을 하며 보낸다.

모든 아이들이 모이는 1시께 점심을 먹고 나면 오후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아이들은 저

학년반(이웃반)과 고학년반(좋은반)으로 나뉘어 요일별로 컴퓨터교육과 집단 상담, 심리·독서치료, 인 예치료, 영어, 한자 등을 전문 강사에게 배운다. 인 후 6시께 저녁을 먹고 귀가한다. 개학후에는 방과 후 오후 3시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캠프(연간 1회), 현장(연 2회), 공연 관람(연 2회) 등의 체험학습도 하게 된다.

여동생과 함께 온 김한용(가명·대성초 4년)군은 "엄마와 아빠가 모두 일을 나가기 때문에 이곳에 오기 전에는 집에서 동생이랑 맨날 TV를 보는 것으로 방학을 보냈다"며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이 있어 너무 즐겁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인 이웃반 담임 교사 김현화(24)씨는 "아이들이 이곳 생활에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며 "아이들의 성격도 밝아 가르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문의 062-671-9506 후원계좌:광주은행 122-127-006568 (예금주:굿네이버스) /정성필기자 camus@

종교 칼럼



여연스님

소통의 언어로 평화 깃들기를

지금 전국의 사찰에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기리기 위한 '성도절(聖道節)'의 축제 준비로 분주하다. 성도절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절의 축제 의미와 비슷하다.

부처님이 세상의 근본적인 고통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종말인 죽음을 육체의 질병, 덧없는 꿈을 가진 자의 늙음, 즉 생로병사(生老病死)의 무상(無常)함을 자각하여 출가하고 6년 만에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다.

부활절 또한 중생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전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생을 마감하고 다시 진리의 화현으로 나신 죽음을 기리는 축제다.

부처님은 보리수 나무 아래 새벽별을 안은 채로 깨달음을 얻고 많은 생각을 해야 했다. 첫째, 욕망의 본체인 육체를 혹독하게 단련시키면 그 덧없는 욕망의 욕구들이 해결될 것이라 믿었던 것이 잘못이었음을 알았다. 망가진 몸뚱이를 위해 우유를 마셨던 일로 세존과 함께 수련에 동참했던 동지들, 다섯 비구들이 타락했다면서 떠났다.

과연 그들에게 위대한 깨달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무상한 진리가 그들에게 이해될지 참으로 인간적인 너무도 현실적인 고민이었다.

둘째, 다섯 비구들의 많은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진리를 어떤 언어의 체계로 전달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다시 말해 고대 인도 사회는 (지금도 변한 게 없지만) 수많은 계급들이 난무했고, 언어들이 각 마을마다 달랐다. 부처님은 귀족 계급에서 고상한 브라만의 언어 산스크리트어가 일상 언어였다.

그런데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는 수만 동등 인도 사회를 모순과 질곡으로 범박이 되게 한 계급의 갈등을 타파한 것이었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고 모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즉 주체적 자라는 하늘과 땅 아래 절대 유일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 개체의 고유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언어적 고민은 결국 가장 친민어인 바리다 지방의 말을 선택했다. 언어는 철학에서 존재의 집이라고 한다. 언어는 인간과 세상, 이웃과 타인을 연결해주는 소통의 수단이다.

지금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은 언어적 소통의 장애 때문이다. 대화가 되지 않아 진화에 도처에서 터지는 것이다. 2500년 전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고민했던 일이 오늘 우리의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성도절을 맞아 세상의 막힌 대화를 터진 평화의 화현이 되기를 기원한다. <해남대승사 일지암 임주>

영화안내 Happy Time 영화안내

메가박스 Megabox Day 매주 월-금 영화 4,000원 관람

엔터시네마 1관 허브 (12세) 2관 목공 (12세)

컬럼버스시네마 하남점 상무점

엔터시네마 1관 허브 (12세) 2관 목공 (12세)

컬럼버스시네마 하남점 상무점

영화 소개 및 관람 정보

대인부동산컨설팅 011-625-0510

금보부동산컨설팅 (02)261-8949

인애공인중개사 011-642-0391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062-973-9174

현대공인중개사 (062)371-1900

(주)옥션코리아 법원경매 222-8446